

# 광주FC 코리아컵 우승 좌절...그래도 빛났다

하나은행

코리아컵

감독·선수 퇴장·부상 악재 속  
전북현대와 연장 접전 1-2 패  
K리그 시도민 구단 첫 ACL 8강  
3년 연속 K리그1 잔류 달성

광주FC의 위대한 여정이 코리아컵 준우승으로 마무리됐다.

이정호 감독이 이끈 광주FC는 지난 6일 전북현대와의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연장 승부 끝에 1-2로 지면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광주는 K리그1 우승팀 전북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승부를 보여줬지만 결정적인 순간 경험에서 밀리며 상대 의도적인 흐름에 말렸다. 큰 무대에서 냉정함이 아쉬웠다.

아시아챔피언스리그2(ACL2) 출전권을 노린 광주와 '더블'에 도전한 전북이 맞붙으면서 경기는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보였다.

전반 40분에는 심판 판정에 항의하던 이정호 감독이 연달아 카드를 받으면서 퇴장을 당하기도 했다. 이정호 감독의 퇴장으로 결승전은 사령탑 없는 대결로 전개됐다. 전북의 포엣 감독은 앞선 강원FC와의 준결승 2차전 퇴장 징계로 이날 아예 벤치에 앉지 못했고, 이정호 감독은 중도에 벤치를 떠나야 했다.

선제골을 내준 장면도 아쉬웠다.

전반 47분 전북 김민규의 매서운 슈팅을 수문장 김경민이 저지하면서 큰 위기를 넘겼지만,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 아쉬운 실점이 기록됐다.

전북이 뒤로 공을 돌린 뒤 김태현의 크로스가 나왔다. 김경민이 뛰어올라 공을 낚아채는 것 같았지만, 수비수 진시우가 공에 집중한 나머지 김경민과 충돌했다.

김경민이 공을 떨구자 문전에 있던 전북 송민규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했다. 이어 골대 오른쪽에 있던 이동준이 왼발로 빈 골대를 공략하며 선취점을 가져갔다.

후반 5분에도 김경민이 수비수 조성권과 충돌하는 장면이 나왔다.

김경민이 전북 송민규의 슈팅을 품에 안으면서 위기를 넘기는 것 같았지만, 골대로 달려들던 조성권과 충돌하면서 부상으로 교체됐다.

다행히 긴급 투입된 노희동이 호수비를 이어가면



지난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 열린 광주FC와 전북현대의 2025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광주 팬들이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광주FC 제공〉

서 분위기 반전을 이루는 것 같았다. 기다렸던 골도 나왔다.

후반 25분 신창무가 오른쪽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헤이스가 머리로 공을 떨쳤다. 프리드손슨이 바운드를 헤더로 연결하면서 전북 골망을 흔들었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광주는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이승우의 '원맨쇼'에 연장전, 예상치 못했던 퇴장·부상 악재가 연이어 발생했다.

연장 전반 11분 코너에서 이승우와 공을 다투던 조성권이 상대의 도발에 말렸다. 침착함을 잃은 조성권이 이승우를 밀치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퇴장을 유도한 이승우는 연장 전반 추가 시간에 김태현의 크로스를 받아 왼발로 골을 넣으면서 환호했다.

연장 후반 2분 상황에도 이승우가 있었다.

연장 전반 막판 교체 선수로 들어갔던 권성운이 이승우의 거친 플레이에 쓰러졌다. 이승우의 어깨에 밀려 균형을 잃은 권성운은 얼굴로 바닥에 떨어졌고, 앰블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승우는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등 '이승우 발 폭풍'이 그라운드를 강타했고, 광주는 아쉽게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최종 목표로 삼았던 코리아컵 우승은 이루지 못했지만 광주의 2025시즌은 시작부터 끝까지 찬란했다.

광주는 가장 먼저 시즌을 열고, 가장 마지막까지 달린 팀이었다.

2월 11일 산둥과의 원정경기로 ACL2 일정을 시작한 광주는 고배를 상대로 극적인 역전극을 연출하면서 K리그 시도민 구단 첫 8강 진출 팀이 됐다.

그리고 2월 15일 수원FC와의 시즌 개막전을 통해 정규 시즌에 돌입한 광주는 파이널B 가장 높은

자리인 7위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3년 연속 K리그1 잔류를 이뤘다.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울산을 꺾고 사상 첫 결승 진출도 이뤘다.

ACLE, K리그, 코리아컵을 동시에 소화하는 강행군에도 이정호 감독과 광주 선수들은 피곤 없는 도전으로 박수를 받았다.

겨울비가 내린 가운데 원정 경기로 치러진 코리아컵 결승전에는 구단 역사상 가장 많은 원정팬이 집결하기도 했다. 광주팬들은 61대의 버스를 타고 서울 원정에 나서면서 선수들과 함께 달렸다.

K리그에서는 물론 아시아무대에서도 '광주'를 알린 광주는 역사적인 2025시즌을 남겼다.

/서울=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결혼식 보다 떨렸던 결승전 후회 없이 뛰고 입대합니다”

광주FC 주장 이강현, 김천상무 입대 예정

“결혼식 보다 더 떨린다”며 우승을 다짐했던 ‘주장’ 이강현이 아쉬움을 뒤로 하고 잠시 작별을 고했다.

광주FC 이강현에게는 잊을 수 없는 2025년 그리고 12월이다. 6일 전북현대를 상대로 코리아컵 결승전을 치른 그는 7일에는 택시도를 입고 결혼식을 치렀다. 새신랑이 된 이강현은 이어 국방의 의무를 위해 김천상무로 떠나야 한다.

변준수와 함께 김천상무에 합류한 이강현은 11월 17일 입대가 예정됐었지만 코리아컵 결승을 위해 입대를 연기했다.

입대까지 연기하고, 결혼식 전날 경기를 치르게 된 만큼 코리아컵 결승에 임하는 이강현의 각오는 남달랐다.

2023년 인천에서 광주로 이적한 그는 올 시즌에는 부주장에 이어 주장 완장 역할까지 맡았다.

그는 지난 5일 진행된 코리아컵 미디어데이 행사에 선수 대표로 이정호 감독과 참석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강현은 “구단 최조라 경기에 대한 떨림이 훨씬 큰 것 같다”며 결혼식 보다 구단 첫 코리아컵 결승에 대한 긴장감을 이야기했었다.

신부에 대한 미안함도 우승에 대한 열망을 키웠다.

그는 “신부가 경기에만 몰두할 수 있게 결혼 준비를 도맡아 했다. 미안함이 크다. 신부에게 우승을 선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하지만 결과는 연장 승부 끝에 아쉬운 1-2 패배로 끝났다.

압도적인 질주로 올 시즌 K리그1 조기 우승을 확정한 ‘난적’ 전북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승부를 펼쳤지만, 경험 부족의 선수들의 세밀함이 아쉬웠다.

이정호 감독과 수비수 조성권이 퇴장당하는 악재 속 골키퍼 김경민과 연장전 교체 멤버로 들어갔던 권성운이 부상으로 실려 나오기도 했다.

예상치 못했던 긴박한 상황이 연이어 발생했지만, 이강현은 선수단을 추스르며 마지막까지 전북을 압박하는 등 그라운드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목표했던 우승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강현은 코리아컵 결승이라는 큰 무대에서 또 다른 경험을 쌓았다.



광주FC의 주장 이강현이 지난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의 코리아컵 결승에서 머리로 패스를 한 뒤 공을 지켜보고 있다. 〈광주FC 제공〉

올 시즌 리그 33경기에 나와 광주의 잔류에 기여한 그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알 힐랄을 상대로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엘리트(ACLE) 8강 경기도 소화하는 등 축구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을 쌓았다.

경기가 끝난 뒤 받은 은메달을 들어 보인 이강현은 “금메달이 아니어서 아쉽다”면서도 “많은 경험을 했다. 이 경험이 나와 선수들에게도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을 것 같다. 경기 출전을 못 하면 이런 경험도 할 수 없다. 경기 출전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즌이었고 많은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것이다. 잘하고 오겠다”고 작별 인사를 했다.

/서울=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2026 월드컵, 출근해서 ‘대~한민국’

6월 12일 등 조별리그 세 경기, 한국 기준 오전 10~11시에 열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가 한국시간으로 오전 10시~11시에 kick오프한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7일(이하 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 시간을 발표했다.

전날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 센터에서 열린 조 추첨식에서 각 조 편성과 대진이 결정됐고, 각 경기의 시간과 장소는 이날 공개됐다.

한국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PO) 패스D 승자와 A조에 편성됐다.

우리나라는 조별리그 3경기 모두 멕시코에서 치르며, 경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11시에 시작한다.

1차전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유럽 PO 패스D의 승자와의 대결로, 내년 6월 12일 오전 11시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아르콘 스타디움에서 개최된다.

미국, 캐나다와 더불어 공동 개최국 중 한 곳인 멕시코와의 2차전은 6월 19일 오전 10시 마찬가지로 과달라하라 아르콘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최종 3차전은 6월 25일 오전 10시 멕시코 몬테레이의 BBVA 스타디움에서 치른다.

북중미 월드컵의 화려한 막을 올릴 개막전은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A조 경기로, 한국시간 6월 12일 오전 4시 멕시코시티의 아스테카 스타디움에서 펼쳐진다.

조별리그에서 ‘빅 매치’로 관심을 끄는 프랑스와 노르웨이의 1조 3차전은 6월 27일 오전 4시,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의 L조 1차전은 18일 오전 5시 개최된다.

이번 대회 중엔 FIFA 월드컵 사상 1000번째 경기도 열린다. 6월 20일 오후 1시에 벌어지는 튀니지와 일본의 조별리그 F조 2차전이다.

FIFA는 “현재 확정된 경기장과 시간 배정은 선수와 서포터의 복지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과 동시에 전 세계 시청자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 경기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FIFA는 “FIFA (대륙 간) 및 유럽 PO가 진행되고 남은 6개 본선 출전국이 결정되는 내년 3월에 최종 버전의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